

교양 교육 연구 (제13권 제2호)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9. 4, Vol. 13, No. 2, PP. 369~396

대학생 전공-교양 교과목 이수 특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구조와 이수체계의 문제¹⁾

구유영,²⁾ 박돈하,³⁾ 김정재,⁴⁾ 박영희,⁵⁾ 고철기,⁶⁾ 이보경⁷⁾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논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산업사회가 고도로 분화됨에 따라 대학교육도 더욱 세분화된 학과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일반화되었다. 전문화는 효율적이지만 그로 인해 전체성을 상실하고 비인간화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전문화와 분업화로 대학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한 반성은

1)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자료사용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료로 진행되었음(승인번호: YUC2018-06).

2) 제1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yykoo@yonsei.ac.kr

3)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parkdh@yonsei.ac.kr

4)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jjk8467@gmail.com

5)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gidget21@yonsei.ac.kr

6)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kochulki@yonsei.ac.kr

7)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bklee@yonsei.ac.kr

대학교육에서 보편적·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보편지성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강창동, 2012; 손동현, 2010; Kronman, 2007), 단일전공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로는 현재와 미래에 개인, 기업, 정부, 사회가 직면한 많은 과제와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은 대학교육에서 학과의 벽을 낮추고 교육과정의 개방성, 통합성,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Brint, 2009; Krueger, 2004).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모든 전공은 단일학과 과목을 1/3 이상 편성할 수 없고, 하버드 대학의 졸업 이수요건 중 전공학점은 40% 내외인데, 대학은 그 이유를 “학문적 편협성(parochialism)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고,⁸⁾ 상당수의 대학은 아예 학생이 단일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수를 제한하고 있다.⁹⁾

그러나 한국 대학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 대학의 교육은 지나치게 전문지식과 기술 중심의 전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보편지성교육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은 변방으로 밀려 부실화되고 있다(서남수, 2011; 손동현, 2010; 강창동, 2012; 홍후조, 2004). 그나마 전공교육과정도 심화된 분과학문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공 내 심화과정들 간의 연계성이나 타 학문영역과의 통합성이 낮다(신정철, 2011).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전체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구성되지 않고 “학과별, 교수별 요구를 수합하여 적절하게 짜깁기한 형태”라는 비판(홍후조, 2004)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학 교양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교양교육과정은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초학문분야의 교과목을 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나 교양교육에 대해서도 교과목 연성화, 전공과목과 응용학문에 의한 잠식, 학문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도 관심과 학문적 기대보다는 익숙한, 쉬운 과목만 이수하고 있다는 우려도 많다(이효진, 2017; 홍후조, 2004).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신정철, 2011; 최미리, 2000; Arnold, 2004). 그러나 그동안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주로 교육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과 같은 투입(input)이나 연구 성과나 학습 성과와 같은 산출(output)에 집중되었고, 과정요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유현숙, 2009; 신정철, 2008). 투입과 산출에 해당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측정이 수월한 반면, 과정요소는 개념 정의나 객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국내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된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주요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 강좌규모, 교과목 편성과 운영체계 개선 실

8) 스탠퍼드 대학 “to avoid intellectual parochialism, a major program should not require a student to take more than about one-third of his or her courses from within a single department” from <https://exploreddegrees.stanford.edu/>; 하버드 대학 <https://college.harvard.edu/academics/planning-your-degree/graduation-requirements> (2019, 2, 15)

9) 예를 들어 미시간 주립대학은 한 학과과목을 60학점(전체 120학점 중) 이상 들을 수 없는 학점 제한(credit limit)을 두고 있다.

적 등 양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 위주이고, 그마저도 교육환경이나 지원시스템 등의 투입-산출 지표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다.

최근 들어 강의실 밖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주로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주된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교과목 편성의 특징이나 문제점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대학 교육과정 나아가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아는 데 중요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주요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연구 중에서 홍후조(2004)는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와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신정철(2013)은 전공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강창동(2012)은 교양교육과정의 구조와 이수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효진(2017), 정혜진과 김정원(2016) 및 박노국(2001)은 수강신청과 관련된 학생들의 행동 특성과 과목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과목 편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실태는 교과목 편성과 이수체계의 문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학 학생들이 졸업 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졸업 때까지 이수한 전공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을 분석하고, 전공별, 성별 과목선택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 교육과정과 이수체계가 가진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학문영역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구조와 이수체계의 문제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사립대의 한 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비율,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자 수, 및 교양과정의 학문영역별 이수과목 수가 단과대학별로 성별로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A 사립대학의 2017년 8월과 2018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대학교는 2010년 이후 새로 개편된 교양과정 이수체계가 적용되어 2010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교양과정 이수체계가 다른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약학대학 소속 학생 및 편입생의 자료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학

생은 총 12개 단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며, 수집한 자료는 학생 특성과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수강한 과목에 대한 자료이다.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성별, 단과대학, 전공학과, 이중전공, 부전공 여부 등이다. 수강관련 자료는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수강한 과목들에 대해서 수강한 학기, 과목의 종별·영역, 재수강 여부, 학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과목의 종별은 교양, 전공, 교직, 일반(평생교육사과정, 군사학 등) 등으로 나뉘어 있고, 영역은 교양과목에 대해서 졸업에 필수/선택 여부와 학문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2.2. 수강 교과목 분류

A 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및 기타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단과대학별로 졸업 이수요건은 다른데 126~16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은 일부 단과대학을 제외하고 전체에 공통으로 이수규정이 적용되며 학부대학에서 통합하여 개설·운영한다. 교양과목 중 글쓰기, 영어, 수학, 기초과학, 경제학, 통계학 및 제2외국어 등의 기초과목은 주로 1~2학년에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그 외의 교양 교과목은 1~4학년에 이수하도록 한다. 전공과목은 주로 2~4학년 때 이수하나, 일부 전공기초과목을 1학년 과정에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기초, 필수교양, 선택교양으로 구성되며,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규정을 두고 있다.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이수규정을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1>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	구분
교양교육과정	공통기초, 필수교양, 선택교양
전공교육과정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교직,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을 위한 국제처 개설과목 등

<표 2>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이수체계

구분	영역/교과목		최소 이수규정
공통기초	기독교의 이해(3학점), 글쓰기(3학점), 대학영어 I·II (4학점)		10학점
필수교양	문학과 예술	8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	24학점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선택교양	국가와 사회공동체	자유 선택	없음
	지역세계와 사회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역사·철학영역		
선택교양	과학·기술영역	자유 선택	없음
	사회·윤리영역		
	인문·예술영역		
	세계문화·언어영역		
	생활·건강영역		

이 대학의 신입생은 학부대학 소속으로 입학하며, 공통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전공학과에 진입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이해(3학점), 글쓰기(3학점), 대학영어 I·II(4학점) 등 10학점을 이수한 후 학부대학에서 입학 시 결정된 전공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다.

필수교양은 대학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교과목을 고르게 접하고, 해당 학문의 보편적, 핵심적 내용을 전공 교과목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필수교양은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학문분야의 과목을 주제에 따라 각각 3개 영역씩 총 9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필수교양은 배분이수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해당 학문영역의 기초과목, 주제 중심이거나 간학문적인 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졸업요건은 필수교양 총 9개 영역 중 최소 8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전공에서는 대학 차원의 교양과정 이수요건과는 별도로 필수교양 교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 혹은 과목군을 졸업 필수로 지정하거나, 전공-교양과정에 과목을 중복 설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화공생명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등은 졸업을 위해서 필수교양 교과목을 12과목(36학점) 이수해야 한다(‘논리와 수리’ 영역에서 공학수학(1)·(2), 공학정보처리 필수,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영역에서 총 12학점 이수, 나머지 7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1과목씩 필수 이수). <표 3>에 필수교양 각 영역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고, 영역별 교과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과목의 예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필수교양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3학점이다.

<표 3> 필수교양 영역별 교육목표

영역	교육 목표
문학과 예술	인간의 삶과 내면을 표현한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즐긴다.

인간과 역사	인류가 걸어온 삶의 흔적을 사회·문화·심리·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한다.
언어와 표현	세계의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각 언어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다.
가치와 윤리	인간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사회적·정치적 이념과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국가와 사회공동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구성 원리, 형성과정 및 역학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지역사회와 세계	지역사회(세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세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논리와 수리	논리적 사고의 기본유형들을 숙지하고, 수리·논리의 개념과 이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적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자연과 우주	물질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주변 현상에 적용한다.
생명과 환경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적용하여 생명현상과 인간행동을 이해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한다.

〈표 4〉 필수교양 영역별 교과목 예시

영역 구분	대표 교과목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영상예술, 영화의 이해, 문학의 이해
인간과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 대인관계의 심리한, 전쟁과 역사
언어와 표현	중국어1·2·3, 러시아어1·2·3, 스페인어 1·2·3, 말하기와 토론, 수화
가치와 윤리	철학과 윤리, 성평등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서양 중세문명과 종교
국가와 사회공동체	현대사회와 사회학, 문화의 이해, 가족생활과 법
지역사회와 세계	현대사회와 경제,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경제학입문
논리와 수리	미분적분학과 벡터해석(1)·(2), 공학정보처리, 통계학 입문, 수학과 금융사회
자연과 우주	일반물리학 및 실험(1)·(2), 일반화학 및 실험(1)·(2), 우주의 이해
생명과 환경	일반생물학 및 실험(1)·(2), 삶과 생명과학, 물질과 생명

선택교양은 이수 의무가 없으며, 학문분야별로 ‘역사·철학’, ‘과학·기술’, ‘사회·윤리’, ‘인문·예술’, ‘세계문화·언어’, ‘생활·건강’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다. 선택교양 각 영역별 교과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5〉에 각 영역의 대표과목의 예를 제시하였다. 필수교양 교과목이 모두 3학점인데 반해, 선택교양과정의 교과목은 1~3학점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표 5〉 선택교양 영역별 교과목 예시

영역 구분	대표 교과목
역사·철학	현대철학의 문제,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과학·기술	지구와 우주, 환경과 대기, 생물과 인간생활

사회·윤리	법과 민주주의, 남녀평등과 인간화, 일의 세계와 심리학
인문·예술	서양미술사, 전통음악의 이해, 한국영화의 이해
세계문화·언어	중국문화와 예술, 시사영어, 한문으로 읽는 조선의 문화
생활·건강	인간과 건강, 현대사회와 스포츠, 현대사회와 정신건강

3. 연구 결과

3.1. 기초 통계

본 연구 대상 학생은 총 3,283명으로 남학생은 52.4%, 여학생은 47.6%이다. 단과대학별, 남녀 학생 수와 비율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단과대학별 남녀 학생 수와 비율

	남		여		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문과대학	143명	30.8%	322명	69.2%	465명
사회과학대학	120명	30.2%	277명	69.8%	397명
상경대학	182명	59.7%	123명	40.3%	305명
경영대학	179명	53.4%	156명	46.6%	335명
이과대학	140명	72.9%	52명	27.1%	192명
생명시스템대학	55명	56.1%	43명	43.9%	98명
공과대학	653명	84.5%	120명	15.5%	773명
생활과학대학	31명	19.0%	132명	81.0%	163명
교육과학대학	90명	63.8%	51명	36.2%	141명
신과대학	24명	53.3%	21명	46.7%	45명
음악대학	41명	33.0%	83명	67.0%	124명
언더우드국제대학	63명	25.7%	182명	74.3%	245명
계	1,721명	52.4%	1,562명	47.6%	3,283명

3.2. 단과대학별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 특성

이 대학교는 복수전공, 부전공, 소속변경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3학기 이상 이수한 후 사전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전공의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학위기에 입학한 전공과 병기된다. 부전공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해당 전공의 교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수한 후 신청하면 학위기에 부전공으로 기록된다. 의·치의학 대학, 음악대학 및 체육대학 등 일부 전공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제한된다. <표 7>에 단과대학별로 학생이 입학한 전공 이외의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한 상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7> 단과대학별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 비율

단과대학	졸업생 수(명)	복수전공 선택		부전공 선택		선호 전공
		학생 수 (명)	비율(%)	학생 수 (명)	비율(%)	
문과대학	465	143	30.8	58	12.5	경영학, 경제학
사회과학대학	397	80	20.2	38	9.6	경제학, 경영학
상경대학	305	41	13.4	45	14.8	응용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경영대학	335	25	7.5	20	6.0	경제학, 응용통계학, 컴퓨터과학
이과대학	192	48	25.0	5	2.6	
생명시스템대학	98	8	8.2	3	3.1	심리학, 컴퓨터과학
공과대학	773	20	2.6	9	1.2	경제학, 경영학
생활과학대학	163	43	26.4	13	8.0	경영학
교육과학대학	141	42	29.8	6	4.3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신과대학	45	23	51.1	5	11.1	정치외교학
음악대학	124	4	3.2	0	0.0	
언더우드국제대학	245	56	22.9	28	11.4	경영학, 경제학
계	3,283	533	16.2	230	7.0	

졸업생 중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23.2%이고, 복수전공(16.2%)이 부전공(7.0%)보다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국내 대학 졸업생의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이수비율인 16~22%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하지만(남기곤 외, 2010; 이필남, 2013), 미국 대학의 복수전공 비율 25%보다는 다소 낮다(Del Rossi & Hersch, 2008; Hemelt, 2010). 복수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이수자보다 많은 것은 취업과 진학 등에서 복수전공이 부전공보다 유리하다고 학생들이 판단

하였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한 학생 중 4명은 3개의 전공을 이수하였고, 두 개 이상의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도 4명 있었다. 또한 두 개의 전공과 1개의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11명이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신과대학 학생 중 62.2%의 학생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여 가장 높았고, 문과대학(43.3%), 생활과학대학(34.3%), 언더우드국제대학(34.3%), 교육과학대학(34.1%)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졸업생 각 201명과 118명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여 다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음악대학과 공과대학은 각각 3.2%, 3.8%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생명시스템대학과 경영대학 졸업생도 각각 11.3%, 13.5%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단과대학별 차이는 대학 입학 시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복수전공과 소속변경 의사를 파악하였는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많았던 신과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은 꾸준히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학한 학생 대상 조사에서 문과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은 복수전공 고려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5)’와 ‘그렇다(4)’에 응답한 학생이 70~80%로 상대적으로 많고, 상경대학, 공과대학 등은 40~50%로 낮았다. 소속변경 여부에 대한 응답의 경우, 문과대학, 신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등은 ‘매우 그렇다(5)’와 ‘그렇다(4)’에 응답한 학생이 15~20%였고, 상경대학, 경영대학 등은 2~5% 정도로 낮았다(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18). 그러나 입학 시 복수전공에 대한 요구에 비해 실제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절반이나 그 이하에 머물렀는데, 주된 이유는 복수전공의 경우 사전 승인과정에서 학생 수를 제한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타 전공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사전 승인과정이나 경쟁이 없는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나 결과는 달랐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취업이나 진학 시 부전공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낮음을 고려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나는 교과목, 특히 학생 수요가 많은 전공의 교과목의 수강생 수용 능력이 수요에 비해 적어서 수강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 다른 하나는 제1전공의 전공 이수요건이 많아서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다. 실제 이 대학은 일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 수강신청을 할 때 소속 전공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표 7〉의 선호전공은 각 단과대학별로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15%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들을 나타낸다. 전체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응용통계학, 컴퓨터과학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2008년 전국적 규모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필남(2013)은 2008년 졸업생 약 16.4%가 복수전공을 이수했는데 그중 인문과 경상계열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한 학생이 12.6%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컴퓨터과학에 대한 복수전

공이나 부전공 수요가 높은 것은 최근 IT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대학 졸업생들의 선호전공은 타 단과대학과 달랐는데, 이들은 주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교직 복수전공은 제1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직과정이 설치된 다른 학과(전공)를 복수로 전공하면 복수의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육과학대학 내 전공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중에서 교육학과는 52명의 졸업생 중 26명이 복수전공, 5명이 부전공을 이수한 반면, 체육교육학과는 37명의 졸업생 중 1명의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했고, 스포츠 레저학과는 52명의 졸업생 중 1명이 복수전공, 15명이 부전공을 이수하는 등 교육학과 졸업생과 양상이 달랐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3.3. 단과대학별 전공 교과목 수강특성

각 단과대학별로 졸업 이수학점과 비율, 그리고 실제 학생이 졸업 때까지 이수한 전공 교과목의 이수 비율을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단과대학별 졸업 이수학점, 졸업 이수요건 중 전공학점 비율 및 실제 전공과목 이수비율

대학	졸업이수학점	졸업이수요건 중 전공학점수와 비율(%)	전공 교과목 ^a 이수비율(%)
문과대학	135	48~57 (35.5~42.2%)	46.2%
사회과학대학	126	48~54 (38.1~42.9%)	49.6%
상경대학	126	48 (38.1%)	50.7%
경영대학	126	48 (38.1%)	53.7%
이과대학	135	60~69 (44.4~51.1%)	48.4%
생명시스템대학	135~140	57~66 (42.2~47.1%)	47.6%
공과대학	140	57~60 (40.7~42.9%)	55.2%
생활과학대학	126	48~54 (38.1~42.9%)	48.3%
교육과학대학	126	48 (38.1%)	52.6%
신과대학	135	60 (44.4%)	48.4%
음악대학	140	68~90 (48.6~64.3%)	69.4%
언더우드 국제대학	126~135	42~57 (33.3~42.2%)	40.4%

a: 입학시 결정된 단일전공의 교과목.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은 제외함.

2018년 2월 졸업한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졸업 이수요건보다 많은 전공과목을 이수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실제 학생들이 이수한 전공 교과목의 비율은 음악

대학(69.4%), 공과대학(55.2%), 경영대학(53.7%), 교육과학대학(52.6%), 상경대학(50.7%), 사회과학대학(49.6%), 이과·신과대학(48.4%), 생활과학대학(48.3%) 순으로 높았다(〈표 8〉). 생명시스템대학(47.6%), 문과대학(46.2%)과 언더우드국제대학(40.4%)은 전공과목 이수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낮았다.

단과대학별 전공과목 이수비율의 경향은 학문의 성격과 졸업 후 진로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김영식(1994)은 한국의 대학에 기본학문 단과대학과 직업학문 단과대학이 혼재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고, 손동현(2011)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은 범용성과 보편성을 가진 기초학문분야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교양교육 표준 모형에서도 기초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단과대학별로 실용성을 추구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직업지향 대학(professional college)과 교육 내용이 직업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학문연구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문리와 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도 전공과목 수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대학, 교육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은 직업지향 대학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전형적인 문리와 대학인 문과대학과 이과대학, 그리고 문리와 대학에 속할 수 있는 생명시스템대학은 직업지향 대학인 공과대학이나 경영대학보다 낮은 전공수강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졸업요건 중 전공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업지향 대학인 경영대학이나 문리와 대학에 속하는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 38% 내외로 거의 같았고, 문리와 대학인 이과대학(44.4~51.1%)이 직업지향 대학인 공과대학(40.7~42.9%)보다 오히려 높았다.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은 신입생 시절 전체 학생의 60~80%가 복수전공, 부전공, 소속변경 등을 원했으나 실제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상당히 적은 것은 전공과목 이수비율이 높은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3.4. 단과대학별·성별 교양 교과목 이수 특성

3.4.1. 단과대학별·성별 필수교양의 영역별 수강 특성

필수교양은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세 영역은 각각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과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기초과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필수교양의 9개 영역별 평균 이수과목 수를 단과대학별, 성별로 구분하여 〈표 9〉에 요약하였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9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총 24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특정 학문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없이 균등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였다면 영역별 이수과목 수 평균은 0.9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공동체’ 및 ‘생명과 환경’ 영역의 이수과목 수는 평균 0.9 내외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수과목 수는 평균 1.0을 넘었다. 특히 ‘지역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및 ‘자연과 우주’는 각각 평균 1.65, 1.70, 1.76으로 가장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역의 경우 성별, 단과대학별로 평균 이수과목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단과대학별·성별 필수교양 영역별 평균 이수 교과목 수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			계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	지역 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전체	전체	1.2	1.47	1.26	0.83	0.97	1.65	1.7	1.76	0.77	11.60
	남	1.14	1.36	1.1	0.77	1.02	1.71	2.09	2.17	0.76	12.11
	여	1.27	1.61	1.46	0.91	0.9	1.58	1.22	1.25	0.79	10.98
문과 대학	전체	1.33	1.7	2.12	1	0.92	1.53	0.79	0.88	0.77	11.06
	남	1.33	1.59	2.13	0.97	1.02	1.59	0.8	0.95	0.73	11.11
	여	1.33	1.75	2.12	1.01	0.88	1.51	0.79	0.85	0.79	11.03
사회 과학 대학	전체	1.27	1.68	1.31	0.98	1.00	1.73	0.83	0.83	0.69	10.33
	남	1.24	1.56	1.23	0.9	1.03	1.76	0.96	0.84	0.66	10.18
	여	1.29	1.74	1.34	1.01	0.99	1.72	0.78	0.82	0.7	10.39
상경 대학	전체	1.21	1.48	1.14	0.86	0.9	1.78	1.58	0.83	0.66	10.42
	남	1.16	1.38	1.09	0.87	0.91	1.78	1.66	0.81	0.68	10.36
	여	1.28	1.61	1.22	0.85	0.87	1.77	1.46	0.85	0.62	10.52
경영 대학	전체	1.21	1.58	1.18	0.93	0.97	1.73	1.29	0.81	0.52	10.22
	남	1.19	1.45	1.07	0.94	0.95	1.69	1.32	0.82	0.55	9.97
	여	1.24	1.73	1.31	0.92	0.99	1.78	1.25	0.8	0.48	10.51
이과 대학	전체	1.09	1.26	1.02	0.72	0.69	1.23	2.48	4.05	0.43	12.96
	남	1.05	1.25	0.97	0.71	0.76	1.21	2.5	4.01	0.31	12.74
	여	1.19	1.29	1.15	0.73	0.5	1.29	2.42	4.13	0.75	13.46

생명 시스템 대학	전체	1.23	1.53	1.03	0.81	0.63	1.26	2.03	3.45	1.88	13.85
	남	1.15	1.62	1.11	0.8	0.58	1.2	2.22	3.64	1.95	14.25
	여	1.35	1.42	0.93	0.81	0.70	1.33	1.79	3.21	1.79	13.33
공과 대학	전체	1.07	1.24	0.92	0.54	1.14	1.93	3.12	3.16	0.89	14.01
	남	1.07	1.24	0.89	0.57	1.16	1.95	3.12	3.21	0.84	14.05
	여	1.05	1.24	1.09	0.43	1.06	1.78	3.13	2.88	1.16	13.82
생활 과학 대학	전체	1.26	1.46	1.19	1.01	0.77	1.26	0.88	1	0.82	9.64
	남	1.1	1.35	0.9	1.06	0.87	1.35	1.06	0.94	0.77	9.42
	여	1.3	1.48	1.26	0.99	0.74	1.23	0.83	1.02	0.83	9.69
교육 과학 대학	전체	1.19	1.38	1.11	0.99	0.99	1.21	0.62	0.84	0.83	9.18
	남	1.19	1.33	1.09	1.07	1.08	1.15	0.6	0.87	0.84	9.22
	여	1.2	1.47	1.16	0.84	0.84	1.31	0.67	0.8	0.8	9.10
신과 대학	전체	1.22	1.33	1.2	0.93	1.02	1.4	0.67	0.84	0.73	9.36
	남	1.25	1.42	1.04	0.92	1	1.46	0.79	0.75	0.67	9.29
	여	1.19	1.24	1.38	0.95	1.05	1.33	0.52	0.95	0.81	9.43

‘문학과 예술’ 영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이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보다 선택과목 수가 많았다. 같은 이공계열이지만 생명시스템대학이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보다 선택과목 수가 많았다. ‘인간과 역사’ 영역은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보다 선택과목 수가 많았는데, 이는 이공계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택과목 수가 많았지만, 생명시스템대학과 신과대학에서는 반대로 남학생들의 선택과목 수가 높았다. ‘언어와 표현’ 영역은 생명시스템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택과목 수가 많았다. 문과대학은 제2외국어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이수조건 때문에, 주로 외국어 과목으로 구성된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남녀 모두 평균 두 과목 이상 이수하였다. 반면 공과대학은 ‘언어와 표현’ 영역의 과목을 이수하면 공학인증제의 공학소양학점으로 인정받지만, 평균 0.9과목 이수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적게 선택하였다.

‘가치와 윤리’ 영역은 ‘국가와 사회공동체’, ‘생명과 환경’ 영역과 함께 학생들이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은 각각 평균 0.54과목, 0.72과목으로 현저히 적게 이수하였다. ‘국가와 사회공동체’ 영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선택과목 수가 적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내에서도 이과대학이나 생명시스템대학에 비해 남학생이 많은 공과대학이 많이 이수하였다.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은 다른 영역

에 비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여 이수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다. 경제학입문을 졸업필수로 규정한 경제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가 포함된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졸업생이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다. 공과대학은 공학기본소양과목을 이수하면 ‘국가와 사회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의 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에서 평균 1.9 과목을 이수하였다.

‘논리와 수리’ 영역에서는 공학수학(1)·(2) 또는 미적분학(1)·(2) 등이 졸업 이수요건인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졸업생은 평균 2~3과목 이상 이수하였고, 통계학입문이 졸업 필수요건인 상경대학, 경영대학 졸업생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다.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신과대학도 ‘논리와 수리’ 영역의 이수과목 수가 필수교양의 다른 영역에 비해 많았다. ‘자연과 우주’ 영역은 일반물리학및실험(1)·(2)을 이수하도록 하는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은 평균 3~4과목 이상 이수하였고, 공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연과 우주’ 영역에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 환경’ 영역은 같은 수학 및 기초과학 영역인 ‘논리와 수리’와 ‘자연과 우주’ 영역에 비하여 학생들의 이수과목 수가 현저히 적었다. 또한 공과대학과 이과대학 졸업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여, ‘자연과 우주’와 대조를 보였다. 현대 과학기술기반사회에서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시스템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선택비율이 낮았는데, 공과대학과 이과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이수과목 수도 1보다 낮았다. 일반생물학및실험(1)·(2)을 이수하도록 하는 생명시스템대학은 평균 1.9과목 내외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특정 영역에 대한 선호와 기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영역별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의 비율(A)과 한 과목도 듣지 않은 학생의 비율(B)을 <표 10>에 요약하였다. 졸업생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은 영역은 주로 졸업 이수요건의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수교양 이수요건에 더해 추가적으로 특정 과목이나 과목군을 졸업요건을 지정한 경우, 즉 공과대학,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문과대학 및 경영대학의 경우 해당 영역인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언어와 표현’, ‘지역사회와 세계’ 및 ‘국가와 사회공동체’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50%~100%로 높았다. 이 영역에서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각 단과대학 소속 전공의 졸업요건에 따라 달랐는데, 예를 들어 모든 전공이 미적분학(1)·(2)을 이수하도록 한 이과대학은 100%의 졸업생이 2과목 이상 이수한 반면, 미적분학(2) 이수규정이 없는 일부 전공이 포함된 공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에서는 이 비율이 100%보다 낮았다. 사회과학대학의 6개 전공 중 행정학과와 상경대학 2개 전공 중 경제학과는 경제학입문을 졸업 이수요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한 해당 단과대학 졸업생은 50% 이상이었다.

졸업요건에 의한 효과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학문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문과대학은 외국어 과목이 다수 포함된 ‘언어와 표현’ 영역을 제외하면, ‘인간과 역사’와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인간과 역사’ 영역은 여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은 남학생들이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대학 학생도 졸업 이수요건의 영향을 제외하면 문과대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인간과 역사’와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의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 42~57%로 많았고, 여학생은 ‘인간과 역사’ 영역을, 남학생은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을 상대적으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대학은 ‘지역사회와 세계’ 외에 ‘인간과 역사’ 영역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는데, 이 영역에서 여학생의 절반 내외와 남학생의 35% 내외가 이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였다. 경영대학 학생은 전반적으로 ‘문학과 예술’과 ‘언어와 표현’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대학 남학생의 경우 27.9%의 학생이 ‘논리와 수리’ 영역에서 두 과목 이상 이수하여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생명과 환경’에서는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영대학 졸업생이 남녀 모두 절반 내외로, 이 영역을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경대학도 경제학입문과 통계학입문이 포함된 ‘지역사회와 세계’와 ‘논리와 수리’를 제외하면 ‘인간과 역사’, ‘문학과 예술’ 등 인문학 영역의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보다 대체로 높았고, ‘생명과 환경’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 이과대학 및 생명시스템대학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인문학 교과목을 사회과학 교과목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열 졸업생들은 사회과학 영역 중에서 ‘가치와 윤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 영역에서는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24~52%로 높았다.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22~70%의 이공계 학생이 2과목 이상 이수하였으나 공과대학 여학생만 예외적으로 16%의 학생이 2과목 이상 이수하고, 42% 내외의 학생은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았다. 같은 이공계열이지만 생명시스템대학 졸업생은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에 비해 인문사회 영역의 교과목을 더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간과 역사’ 영역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 40% 내외로 많았고, 여학생은 ‘문학과 예술’과 ‘지역사회와 세계’ 영역에서도 32~35%의 학생이 2과목 이상 이수하였다.

〈표 10〉 필수교양 선택과목수 (A: 2과목 이상 선택, B: 0과목 선택, 단위(%))

영역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선택과목수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문과 대학	남	26.6	4.9	42.6	8.4	80.4	2.8	12.6	18.9	11.9	13.3	47.6	3.5	10.5	34.3	4.9	12.6	2.8	32.2
	여	29.5	1.9	48.1	2.2	75.5	1.2	10.2	11.8	4.6	16.8	41.9	2.8	10.8	34.8	2.1	19.3	5.4	27.0
사회 과학 대학	남	21.6	4.2	41.7	5.0	21.6	9.2	9.2	20.8	15.0	18.3	56.7	5.0	15.0	20.8	3.3	19.2	2.5	36.7
	여	25.2	2.2	51.3	1.8	26.8	5.0	9.4	10.1	11.5	15.2	51.7	2.5	9.4	32.5	2.5	21.0	1.1	31.4
상경 대학	남	19.8	5.5	30.7	2.8	18.1	16.5	7.7	20.9	6.6	16.5	58.2	2.8	49.4	0	2.2	22.0	1.7	34.6
	여	19.5	0	43.9	0	21.1	6.5	2.4	18.7	5.7	19.5	56.9	1.6	40.7	0	2.4	17.1	1.6	39.8
경영 대학	남	22.3	6.7	34.7	5.0	15.6	12.3	11.7	20.1	12.3	19.5	53.1	1.1	27.9	2.3	3.3	21.8	3.4	48.6
	여	24.4	3.2	49.3	2.6	22.4	7.7	7.7	16.0	9.0	11.5	53.2	0.6	19.9	0.6	1.2	22.5	2.6	54.5
이과 대학	남	10.0	7.1	20.7	0.7	10.0	18.6	3.5	33.6	6.4	31.4	22.2	5.7	100	0	100	0	7.9	81.4
	여	17.3	1.9	28.9	1.9	19.3	11.5	5.8	32.7	1.9	51.9	30.8	9.6	100	0	100	0	27.3	53.8
생명 시스템 대학	남	16.3	7.3	41.8	1.8	21.8	16.4	3.6	23.7	7.3	50.9	23.6	7.3	94.6	0	100	0	81.8	0
	여	32.6	2.3	39.5	7.0	11.6	25.6	7.0	25.6	2.3	32.6	34.9	7.0	72.1	2.3	100	0	79.1	0
공과 대학	남	12.6	7.5	23.9	6.3	11.0	26.2	3.3	47.2	23.1	10.9	69.5	2.6	97.7	0.8	95.3	1.8	32.5	51.7
	여	9.2	7.5	22.5	5	18.3	21.2	0	56.7	13.3	9.2	15.8	41.7	98.3	0.8	91.6	1.7	46.7	35.8
생활 과학 대학	남	19.4	12.9	32.3	12.9	6.4	19.4	22.6	19.3	12.9	25.8	35.5	12.9	25.8	25.8	16.1	25.8	6.5	29.0
	여	25.7	3.8	38.6	7.6	21.9	6.1	8.3	10.6	0.8	26.5	24.2	5.3	11.1	27.3	7.6	9.1	7.5	31.1
교육 과학 대학	남	18.9	1.1	27.8	3.3	13.3	4.5	8.9	4.4	17.8	10.0	17.7	5.6	3.3	44.5	3.3	17.8	8.9	26.7
	여	17.6	2.0	35.3	0	15.7	3.9	0	15.7	7.9	23.5	7.8	76.5	3.9	37.3	0	19.6	1.9	21.6
신과 대학	남	16.7	0	33.3	0	12.5	16.7	4.2	12.5	12.5	12.5	33.3	4.2	4.2	25.0	0	25.0	4.2	37.5
	여	23.8	4.8	19.0	0	28.6	4.7	4.8	9.5	14.3	9.5	33.3	4.8	4.7	52.4	0	4.8	0	19.1

3.4.2. 단과대학별, 성별 선택교양의 영역별 수강 특성

선택교양은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철학’, ‘과학·기술’, ‘사회·윤리’, ‘인문·예술’, ‘세계문화·언어’, ‘생활·건강’. 각 영역별 평균 이수 교과목 수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선택 교양은 최소 이수요건이 없지만 학생들은 평균 5.2과목을 이수하였고, 여학생(5.48과목)이 남학생(5.05과목)보다 더 많이 이수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생명시스템대학 학생이 선택교양에서 7.21과목으로 가장 많이 이수하였고, 교육과학대학 학생은 4.42과목으로 가장 적게 이수하였다. 영역별로는 ‘생활·건강’(1.65과목)과 ‘사회·윤리’(1.14과목)를 제외하면 평균 이수과목 수는 1보다 작았

다. 선택교양은 졸업 이수요건이 없기 때문에 학문분야별 학생 선호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단과대학별·성별 선택교양 평균 이수과목 수

		인문·예술	역사·철학	사회·윤리	세계문화·언어	과학·기술	생활·건강	계
전체	전체	0.84	0.6	1.14	0.75	0.26	1.65	5.24
	남	0.78	0.57	1.01	0.55	0.3	1.84	5.04
	여	0.91	0.65	1.3	1	0.21	1.41	5.48
문과대학	전체	1.03	0.82	1.27	1.17	0.21	1.36	5.87
	남	0.98	0.94	1.13	1.05	0.3	1.59	5.99
	여	1.06	0.77	1.34	1.22	0.17	1.26	5.82
사회과학대학	전체	0.92	0.74	1.34	0.97	0.13	1.07	5.17
	남	0.91	0.88	1.36	0.82	0.12	1.39	5.47
	여	0.93	0.68	1.34	1.04	0.13	0.92	5.04
상경대학	전체	0.62	0.66	1.42	0.91	0.28	1.49	5.38
	남	0.56	0.74	1.32	0.8	0.3	1.38	5.10
	여	0.72	0.54	1.56	1.09	0.24	1.65	5.80
경영대학	전체	0.76	0.64	1.25	0.9	0.3	1.27	5.13
	남	0.75	0.64	1.17	0.65	0.37	1.23	4.82
	여	0.76	0.65	1.35	1.19	0.22	1.32	5.49
이과대학	전체	0.88	0.4	0.74	0.46	0.49	1.95	4.93
	남	0.87	0.39	0.64	0.41	0.54	1.86	4.69
	여	0.9	0.42	1.02	0.62	0.38	2.21	5.56
생명시스템대학	전체	0.93	0.67	1.47	0.74	0.45	2.95	7.21
	남	0.89	0.51	1.33	0.6	0.49	2.6	6.42
	여	0.98	0.88	1.65	0.93	0.4	3.4	8.23
공과대학	전체	0.77	0.39	0.89	0.42	0.26	2.02	4.74
	남	0.78	0.39	0.88	0.38	0.27	2.09	4.78
	여	0.69	0.38	0.91	0.63	0.24	1.65	4.50
생활과학대학	전체	1.13	0.53	1.23	0.85	0.32	1.64	5.69
	남	0.71	0.55	1.26	0.61	0.52	2.03	5.68
	여	1.23	0.53	1.22	0.9	0.27	1.55	5.70

교육과학 대학	전체	0.5	0.36	0.82	0.32	0.15	2.27	4.42
	남	0.47	0.33	0.6	0.23	0.13	2.68	4.44
	여	0.57	0.41	1.2	0.47	0.18	1.55	4.37
신과 대학	전체	0.89	1.82	1.18	0.49	0.07	1.09	5.53
	남	0.92	1.79	1.21	0.29	0.04	1.33	5.58
	여	0.86	1.86	1.14	0.71	0.1	0.81	5.48

‘인문·예술’ 영역은 문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 학생이 평균 1과목 이상을 이수하였고, ‘역사·철학’ 영역은 신과대학 학생이 평균 1.8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문학 과목들로 구성된 두 영역에서는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이 이공계 대학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여 이수하였다.

‘사회·윤리’ 영역은 ‘생활·건강’ 영역에 이어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이수한 영역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고, 상경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 여학생은 이 영역에서 1.5과목 이상 이수하였다. ‘세계문화·언어’ 영역은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문과대학과 경영대학 소속 여학생이 평균 1과목 이상 이수하였고,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다.

‘과학·기술’ 영역은 대부분의 단과대학별로 졸업생의 70~90%가 1과목도 이수하지 않았고, 평균 0.26과목을 이수하여 선택교양 영역 중 가장 선호도가 낮았고, 남학생(0.3과목)보다 여학생(0.21과목)의 선호도가 더 낮았다. 이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학생이 평균 0.3과목 이하였고, 신과대학 학생은 평균 0.1과목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신과대학 학생이 90% 이상,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교육과학대학의 80% 이상의 학생은 ‘과학·기술’영역에서 1과목도 선택하지 않아 기피가 심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교과목이 스포츠 실기과목인 ‘생활·건강’ 영역은 모든 단과대학에서 선택교양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수한 영역으로 학생들은 평균 1.65과목을 이수하였다. 생명시스템대학은 거의 3과목을, 공과대학, 교육과학대학 및 생활과학대학 남학생은 이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였다. 이과대학과 생명시스템 대학의 여학생과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및 생명시스템대학의 남학생 중 절반 이상은 ‘생활·건강’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였다.

〈표 12〉 선택교양 선택과목수 (A: 2과목 이상 선택, B: 0과목 선택, 단위(%))

영역		인문·예술		역사·철학		사회·윤리		세계문화·언어		과학·기술		생활·건강	
선택과목수		A	B	A	B	A	B	A	B	A	B	A	B
문과대학	남	24.5	41.9	25.9	44.0	29.3	39.9	27.3	38.4	4.9	75.5	40.5	29.4
	여	28.3	37.9	16.8	45.3	38.2	31.4	35.1	35.7	3.4	86.7	33.6	39.1

사회과학 대학	남	23.3	47.5	22.5	42.5	43.3	35.0	22.5	54.2	0.8	89.2	37.5	35.0
	여	22.8	43.3	14.1	49.5	34.6	33.6	26.0	42.6	1.4	88.5	23.4	50.2
상경대학	남	11.5	58.8	18.3	49.5	33.5	28.6	21.5	54.9	6.6	76.9	36.8	34.6
	여	20.4	52.0	13.8	62.6	44.7	28.5	28.5	46.3	4.1	80.5	45.5	29.3
경영대학	남	19.0	50.3	11.2	52.5	33.6	34.6	14.5	58.1	6.7	71.5	33.0	41.9
	여	18.6	48.1	14.1	50.0	47.1	27.6	31.4	38.5	0.6	78.9	32.7	37.2
이과대학	남	22.1	44.3	5.7	68.6	17.9	57.8	10.7	72.9	8.6	55.7	45.0	28.6
	여	23.1	42.3	3.8	65.4	26.9	42.3	13.5	61.5	3.8	79.4	65.3	13.5
생명 시스템대학	남	21.8	43.6	12.7	63.6	34.6	32.7	10.9	54.5	7.3	60.0	69.1	14.5
	여	30.2	37.2	16.3	39.5	51.1	23.3	20.9	46.5	9.3	69.8	69.7	7.0
공과대학	남	19.1	46.1	5.7	68.4	23.7	47.5	7.2	72.6	2.6	76.3	51.8	25.4
	여	19.2	53.3	5.8	69.2	24.1	55.2	15.8	57.5	2.5	80.8	40.8	27.5
생활과학 대학	남	12.9	45.2	12.9	58.1	29.0	38.7	9.6	58.1	9.7	61.3	51.6	22.6
	여	33.3	34.9	10.6	59.9	31.8	37.1	24.3	53.0	4.6	78.0	39.4	28.0
교육과학 대학	남	12.2	67.8	7.8	77.8	14.5	65.5	2.2	81.1	1.1	87.8	66.6	16.7
	여	15.7	60.8	4.1	66.7	29.4	43.1	11.7	70.6	3.9	86.3	37.2	47.1
신과대학	남	16.6	41.7	25.0	54.2	33.4	33.3	4.2	75.0	0	95.8	45.8	25.0
	여	14.3	33.3	19.0	42.9	33.4	33.3	14.3	52.4	0	90.5	23.8	47.6

4. 논의

대학 교육과정을 전공교육, 교양교육 및 일반선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택교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손동현, 2011; 이효진, 2011). 전공교육의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능력, 주로 직업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데 있다면, 교양교육은 직업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인격적 성숙과 정신적 도야를 추구한다. 교양교육은 전문교육의 편협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시작된 이후 그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한국의 대학은 지나치게 전공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창동, 2012; 서남수, 2011; 손동현, 2011; 신정철, 2011).

이러한 우려는 이 연구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졸업 이수학점 전체에서 전공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35~43% 내외였으나, 이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 일부 전공(47%~51%)과 음악대학(49~64%)이 상당히 높았다. 음악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리와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과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에서 높은 전공 졸업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전공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대학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더해 주목할 점은 직업지향 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 졸업생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교과목 이수 조건에 비해 전공 교과목의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졸업이수 요건 대비 실제 졸업생이 이수한 전공교과목의 초과비율은 경영대학(15.6%), 공과대학(14.5%), 교육과학대학(14.5%), 상경대학(12.6%)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현대 사회의 직업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7.7%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경총 보고서, 1~4).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직업-전공 일치도가 낮고, 직업의 이동성 역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업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분야의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직업지향 대학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삶과 사회에 대한 조망과 인격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에 접할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은 미국의 대학원 수준의 과목이 다수 개설된 등 세분화된 분과학문의 영향이 크고, 타 학문영역과의 통합성이 낮은 것(신정철, 2011)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분과학문적으로 편성된 전공교육과정과 단일전공과목 이수비율이 높은 두 가지 현실은, 자칫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학부 교육성과의 불일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30~40% 내외로 높지 않은 점(신종각 외, 2017)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들의 학부교육은 전공교육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타 학문영역의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업시장의 요구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 '학문적 편협성'에 대한 선진 대학들의 우려를 한국의 대학도 심각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분포는 단과대학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문과대학 졸업생 중 42.4%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생 수와 비율 모두 현저히 높았다. 앞서 언급한 언더우드국제대학과 함께 사회과학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이과대학, 상경대학 등 직업지향적인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 졸업생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많았고, 주로 경영학, 경제학, 응용통계학, 컴퓨터과학 등 현재 직업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공

에 집중되었다. 응용학문이면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생활과학대학 졸업생도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많았는데 다수가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국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필남, 2013). 한편,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미국 내에서는 취업시장의 유불리가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이와 함께 학생과 부모의 전공 선호도의 조합이나 전공 이수의 가능성과 난이도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Zafar, 2012). 한편 전공과목 이수비율과 복수전공 비율이 모두 높은 교육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교양 교과목을 가장 적게 이수하였다.

교양 교과목을 선택하는 요인과 단과대학별·성별 특성도 파악되었다. 교양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선택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졸업 이수요건이다. 대학 차원에서는 9개의 필수교양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 이상씩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언어와 표현’, ‘지역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및 ‘생명과 환경’ 등 일부 영역에서 학생들은 평균 2~4과목으로 현저히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였다. 이 영역은 공통적으로 수학, 기초과학, 경제학, 통계학 및 외국어 등 해당 분야의 전공기초과목이 개설된 영역이었고, 이 교과목들은 관련 전공의 졸업 이수요건에 해당되었다.

졸업 이수요건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교양과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랐고, 단과대학별 교양과목 이수특성도 달랐다. 전체 단과대학에서 남녀 모두 인문학 분야의 교과목에 해당하는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및 ‘언어와 표현’ 영역의 과목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및 수학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보다 더 많이 이수하였다. 인문학 중에서도 ‘인간과 역사’ 영역은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과대학에서 평균 1.5과목 이상 이수하여 가장 선호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수 의무가 없는 선택교양에서는 영역별 선호도 차이가 더 두드러졌는데,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은 스포츠 실기과목이 다수 포함된 ‘생활·건강’과 인문사회분야 과목으로 구성된 ‘사회·윤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다.

선호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드러났다.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교양과 선택교양 모두 과학 관련 분야인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및 ‘과학·기술’ 영역에서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수가 가장 적었다.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은 개념의 위계성이 강하여 선행학습 정도에 따라 학습성도가 달라지고(이보경과 장수철, 2008; 홍후조, 2005)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이 어려워 기피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진로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엄미정, 2008; 이양락 외, 2006), 대학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의 기피와 부실한 교육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정진수 등, 2018), 이 대학에서도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는 확실히 드러났다.

세계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미래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

해서는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과학을 강조하는 추세가 뚜렷하다(Alberts, 2008; Burmeister 등, 2012; Rowe 등, 2015; Serageldin, 2011).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이른바 ‘STEM’ 교육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대학에서의 STEM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도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한 기피가 심한 주된 이유는 대다수 교수자들이 대학 교양과정의 기초과학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공계 전공기초과목의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Krommann(2015)은 대학 내에서조차 과학자의 관심의 대상에서 인간, 사회,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과학이 일반인들의 삶에서 멀어진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고, Bernasek(2016)은 “과학을 전통적인 자유학예(liberal arts) 교육과 분리된 독립적인 분야로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며, 과학의 포괄적 탐색과정은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분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양교육은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이다(손동현, 2011). 대학이 본래의 교양교육 취지에 충실하려면 자신의 전공 이외의 타 학문의 학습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하고 있는 교양교육 표준안에서도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략),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졸업요건을 제외하고도, 교양과정의 인문학 분야 교과목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수하였고, 과학과 기술 관련 교과목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이수하였다. 학생들은 ‘생소한’ 타 학문영역보다는 ‘익숙한’ 인접 학문의 교과목을 더 많이 이수한 셈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양과목 선택할 때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학점취득의 용이성을 가장 크게 고려한다는 이전의 주장(이효진 등, 2017)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교양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와 관심, 학습에 대한 기대보다는 학습의 편이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대학사회 일부에 존재하는 소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 수요에 따른 교과목 편성을 강조하는 풍토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서울 시내 사립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대학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실증적인 자료

는 없지만 그동안 대학사회가 가졌던 대학생의 ‘보편지성교육’ 경험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함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졸업학점 중 단일전공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대학이 50%를 넘었고, 단과대학의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의 지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 전공교육과 직업능력의 불일치가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학부에서 특정 전문지식과 능력보다는 보편지성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정이 보다 개방적으로 전환되고, 타 학문영역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양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편, 대학 입학 시 많은 학생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적은 학생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것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수요에 따라 개설 교과목을 확대·축소할 수 있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도 필요하다.

대학 교양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분야 교과목을 충분히, 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학, 기초과학, 외국어, 경제학, 통계학 등 전공기초로서의 특성이 강한 교과목이 학생들이 이수한 교양과목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대학교육의 한계로 제기한 ‘전공에 의한 교양의 잠식’(서남수, 2011; 손동현, 2010; 신정철, 2011)이 실재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타 학문영역의 교과목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인접한 학문영역의 교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학문영역 특히 전공과 거리가 먼 학문을 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구성과 이수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대학생의 과학기술 교과목 기피가 뚜렷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교양과학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합의수준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양과목으로서 과학기술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서 교양교육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고 학생과 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교과 내용과 깊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창동(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 18(2), 한국교육학회, 83-107.
- 경제조사본부 경제조사2팀(2016).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영식(1994). “과학의 발전과 서양 학문체계의 변천”, *현대의 학문체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소광희 외 지음, 민음사, 127-152.
- 박노국(2001). “대학생들의 교양 · 전공과목 선택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 논문지* 6(1), 한국산업정보학회, 48-55.
- 서남수(2010).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한국교양교육학회, 1-18.
- 손동현(2010).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4(2), 한국교양교육학회, 19-27.
- 손동현(2011). “분과학문과 교양교육의 불협화, 그 연원과 현실 그리고 전망”, *교양교육연구* 5(1), 한국교양교육학회, 171-194.
- 신정철, 윤세정, 정지선, 이소연, 정혜주(2011). “우리나라 대학 전공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69-91.
- 신정철, 정지선, 신태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 요인들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한국교육행정학회, 287-313.
- 신종각, 이주현, 오세미, 김주희(2017).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엄미정(2007).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1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61.
- 이원경, 이주영, 지용승(2018). *2017학년도 1학년 대학생활 실태 분석*(미출판 보고서),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 유현숙(2009).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대학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보경, 장수철(2008). “고등학교 과학 심화선택과목 이수여부와 대학 과학교과목의 학업성취도”, *교육과정연구* 26(2), 한국교육과정학회, 191-210.
- 이양락, 박재근, 이봉우(2006). “제7차 중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7), 한국과학교육학회, 775-789.
- 이효진, 윤가영, 박인우 (2017).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 23(4), 한국교육학회, 79-99.

- 이필남(2013). “대학 복수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5-164.
- 정진수, 권영균, 김원섭, 김응빈, 김혜영, 이덕환, 이보경(2018). *대학 교양기초교육 과학 콘텐츠 개발 기획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홍후조(2004). “4년제 일반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2(3), 한국교육과정학회, 267-295.
- 홍후조(2005). “대한 전공학습을 위한 고교의 선수학습과목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조사 연구”, *교육과정연구* 23(3), 한국교육과정학회, 257-288.
- Alberts, B(2008). “Considering Science Education”, *Science* 319(5870),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589-1589.
- Arnold, G. B. (2004). “Symbolic Politics and Institutional Boundaries in Curriculum Reform: The Case of National Sectarian Universit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5),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572-593.
- Bernasek, S. L.(2016, October 28,). “Science is a key part of a good liberal arts education”, *Times Higher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blog/science-key-part-good-liberal-arts-education/>
- Burmeister, M., Rauch, F., & Eilks, I.(201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secondary chemistry education”, *Chemistr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13(1), Royal Society of Chemistry, 59-68.
- Del Rossi, A. and Hersch, J.(2008). “Double your major, double your retur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4), Pergamon Press, 375-386.
- Hemelt, S. W.(2010). “The college double major and subsequent earnings”, *Education Economics* 18(2), Taylor & Francis, 167-189.
- Kronmann, A. T.(2008).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Yale University Press.
- Krueger, D.(2004). “Skill-specific rather than General Education: A reason for US-Europe Growth Difference?”, *Journal of Economic Growth* 9(2), Kluwer Academic Press, 167-207.
- Rask, Kevin(2010). “Attrition in STEM fields at a liberal arts college: The importance of grades and pre-collegiate preferenc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9(6), Pergamon Press, 892-900.
- Rowe, M. P., Gillespie, B. M., Harris, K. R., Koether, S. D., Shannon, L. Y., and Rose,

- L. A.(2015). “Redesigning a General Education Science Course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Life Sciences Education* 14(3),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1-12.
- Serageldin, I.(2011). “The Values of Science”, *Science* 332(6034),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127-1127.

※ 이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3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9년 4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9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 초 록 ❖

대학생 전공-교양 교과목 이수 특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구조와 이수체계의 문제

구유영(연세대학교)

박돈하(연세대학교)

김정재(연세대학교)

박영희(연세대학교)

고철기(연세대학교)

이보경(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실태는 교과목 편성과 이수체계의 문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졸업 때까지 이수한 전공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을 분석하고, 전공별, 성별 과목선택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 교육과정과 이수체계가 가진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대학 졸업생들의 교과목 이수 실태 분석 결과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은 단일 전공 교과목을 절반 가까이 이수하였고, 일부 단과대학 학생들은 절반을 훨씬 넘는 교과목을 단일 전공에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한 교양 교과목 중에서 수학, 기초과학, 경제학, 통계학 등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교과목의 비율이 높아, 전공에 의한 교양과정의 잠식의 우려가 실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졸업생들이 이수한 교양교과목 분석을 통해 타 학문영역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인접한 학문영역의 교과목에 대한 선호와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기피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단일 전공의 교과목 수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학은 전공교육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타 학문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수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사립대학 한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한국대학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간 학계에서 지적되어온 전공중심의 한국고등교육, 교양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 및 이를 심화하는 대학의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6개) “교과목 이수실태”, “필수교양”, “선택교양” “전공 교양비율”, “부전공”, “복수전공”

❖ Abstract ❖

**Meta-analysis of course selection data of the university graduates
revealed the problems of course structures.**

Koo, Yoo Young(Yonsei University)

Park, Don Ha(Yonsei University)

Kim, Jung Jae(Yonsei University)

Park, Younghee(Yonsei University)

Ko, Chul Ki(Yonsei University)

Lee, Bokyoung(Yonsei University)

Every students are required to select certain credits of courses within a degree program prior to each semester. It is of great importance for higher education to provide well structured courses to maximize the study outcomes of each students during their degree programs. Thus the statistical data such as the course selection pattern of each students, the decision to change the programs and the selection of dual-diploma programs would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s for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s to make better structured courses. However, unfortunately, such data are scarce. Here we analyzed students' pattern of course preferences during their degree program. Our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selected more basic- and major-related courses rather than interdisciplinary classes. It is not desirable for students taking too many major-related courses to become a successful life-long learner in modern society. Thus higher educations needs to develop well structured courses by providing open-ended major courses and interdisciplinary courses. It should be cautious to generalize our results,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case of a private university. However, our data also represent the similar problems of the major centered Korean higher education an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주제어〉 "course selection", "liberal arts", "major", "course structure", "dual-diploma"